



KOBA 2022 방송사 부스

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 KBS는 직접 연구 개발한 최첨단 기술과 발전된 지상파 UHD 혁신서비스 등 7개의 작품을 출품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KBS는 시청자 중심의 방송기술 서비스 전시 시연을 통한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출품항목은 크게 3가지 Zone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HD 존	공적책무 존	연구·체험 존
• 지상파 UHD 혁신서비스 •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 이어도, 방송-통신 디지털 융합네트워크 • 차세대 방송 TPEG 및 RTK 송출시스템	• VERTIGO SE, EE, LIVE - AI 기반 영상 편집시스템 • LED Wall 영상 시연

UHD Zone

지상파 UHD 혁신서비스,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를 시연하여 UHD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사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참관한 내·외빈 관계자들은 UHD 방송망을 이용한 다채널, 모바일, 양방향 혁신서비스 활용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특히 IBB 서비스를 이용한 KBS 재난포털, 재난행동요령 VoD 및 지역충국 뉴스 제공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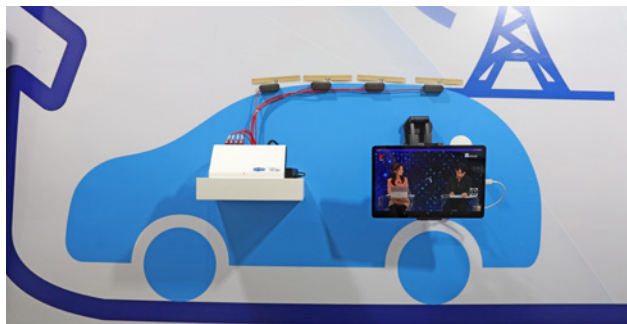
또한, CAST.ERA와 협력하여 선보인 '이동 중인 차량 대상 지상파 방송망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서비스'에도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고, 실외 차량 시연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전시



지상파 UHD 혁신서비스의 소개와 주요 진행 일정을 전시한 UHD 존



차량에서의 이동수신을 구현한 전시



지난 5월 26일 ATSC 3.0 지상파 이동 방송 송출 시연 진행을 설명

공적책무 Zone

‘KBS 방송장비인증센터’에는 UHD 표준 동영상(마케팅용) 신청 방법 및 사용범위, 동영상 제공 포맷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실제로 방문해서 영상을 받아가겠다고 약속한 담당자도 있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도, 방송-통신 디지털융합 네트워크’ 출품작은 방송망과 통신망의 장점을 결합해 난시청해소, 콘텐츠 도달률 확대, 수신 품질 향상이 가능한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시연하였다.

‘차세대 방송 TPEG 및 RTK 송출시스템’은 ATSC 3.0 기반 데이터방송을 통한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했다.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소개 및 전시



4K UHD HDR 표준 동영상 시연



방송망과 통신망을 동시 운영하는 '이어도, 방송-통신 디지털융합 네트워크' 전시



차세대 방송 TPEG 및 RTK 송출시스템 전시

연구·책무 Zone

VERTIGO는 19년도 전시 대비 많은 솔루션을 추가하여 출품하였다. 단순 세로형 영상 편집시스템에서 개인용 편집툴인 SE(Standard Edition), 10명 이상의 팀규모 서버용 편집툴인 EE(Enterprise Edition) 버전을 나누어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또한 실시간 버전인 LE(Live Edition) 버전은 최대 8K 화질에서 Real-time 영상 실시간 인식 및 리프레임 영상 신호송출이 가능해졌고, 이를 전시장에서 시연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이 LIVE 버전을 직접 체험하였다.

LED Wall은 가로 4.8m × 세로 2.7m 크기의 고화질 LED Wall을 부스 전면에 배치해 전시회 관람객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다. 특히 8K 화질로 촬영한 아이돌 영상을 LED Wall에 맞게 다운컨버팅하고 색감을 조정하여 KBS에서 제작한 고화질 영상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VERTIGO 단독(SE)/서버(EE) 고해상도 8K 풀캠 영상 시연



VERTIGO 단독(SE)/서버(EE) 솔루션 워크플로우



VERTIGO LIVE 버전 설명

방송기술인과의 만남,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연합회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송사 신입 엔지니어와 예비 방송기술인들의 만남 역시 주선했다. KOBETA 기간인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12시~13시까지 'B.T.S.(Broadcasting Technical Specialist) 넌 누구니?' 행사를 통해 최근 방송사에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를 초청하여 방송사 취업준비와 입사후기 및 Q&A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를 위해 전국의 주요 대학의 전자, 컴퓨터 등의 학과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였고, 방송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준비 과정과 필요 및 도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에게는 월간 '방송과기술' 과월호가 증정되었고, 추후 '방송과기술'에 수록되었던 방송사별 합격수기가 제공되었다. 



KOBETA 기간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마련한 현직 방송기술인과의 만남, 'B.T.S. 넌 누구니?'



개인마다 방송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입사 준비 등에 대해 발표했다



Q&A 시간을 통해 예비 방송기술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기도 했다